

# 운전이 좋아서 시작한 일, 사람과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고양누리버스 운전기사 고정인 씨

글 박다연 사진 이현재

‘고양누리버스’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지역과 외곽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 노선을 신설하여 원활한 출퇴근길을 돕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작년 말 신설됐다. 덕분에 고양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대되고 생활의 질 또한 높아졌다. 고양누리버스와 함께 고양시 곳곳을 누비는 고정인 씨의 즐거움 역시 여기에 있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누군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그로 인해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 그녀가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이유다.



**Q —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여성 기사님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양누리버스 기사를 하게 된 과정과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젊은 시절 방문학습교사로 오랜 기간 일했었어요. 당시 담당 과목이 영어였던지라 고양시 곳곳 이동 거리가 상당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하던 일을 그만 두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버스운전’이었어요. 사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버스운전자격을 이미 따놓았었거든요. 그렇게 2014년도 마을버스를 시작으로 버스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내버스운전기사로도 일했고요. 이후 몸이 안 좋아져 쉬면서 덕양구청에서 행정보조로 일했었는데, 그때 고양누리버스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아야겠다 생각했죠.

**Q — 고양누리버스만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날이 덥거나 추울 때, 바쁜 아침 출근길에 대중교통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사는 분들은 특히 더 힘들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승객은 많지 않지만, 누리버스로 인해서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졌다, 이동이 수월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무척 뿌듯해요.

**Q — 승객들과 친밀해지는 만큼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습니다. 누리버스를 운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곳길에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승객분들 등 많은 분들이 일상을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 버스에 타셨던 한 어르신과 자녀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버스를 운행하는 중에 저 멀리서 어떤 분이 손을 흔들고 계셔서 다가가서 보니 몸이 불편한 노모를 자녀분이 부축해서 나오신 거였어요. 퇴근하고 온 자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께 드라이브를 시켜드리고 싶어 누리버스를 한참 기다리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차도 없는데 무슨 드라이브냐고 했지만, 자녀분께서 누리버스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흔쾌히 그분들을 싣고 버스 운행구간 중 좋은 산



책로도 추천해드렸어요. 제가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Q —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운전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러한 봉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버스를 운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늦은 시간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여성 승객분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골목 안쪽까지 운행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종점에서는 기존 정류장이 아닌, 골목 언저리까지 내려드리곤 했어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했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기사 책임이라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딸 같은 승객들을 어둠 속에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회사에 보고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이제는 노약자분이나 어린이, 여성분들은 되도록 집과 가까운 곳에 내려드리려 하고 있어요. 제가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고양시에서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주신 만큼, 저도 뭔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요. 딸 셋의 엄마이기도 한지라, 망설임 없이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Q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누리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회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웃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노인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